

# 백제 석조의 성격과 미륵신앙

한 정 호\*

- I. 머리말
- II. 근대 이후 부여석조의 내력과 제문제
- III. 부여석조의 성격
- IV. 대통사지 석조와 백제의 미륵신앙
- V. 맺음말

## I. 머리말

백제의 石槽는 직사각형으로 제작되는 일반 석조와 달리 기대석 위에 사발을 얹어놓은 듯한 독특한 형식으로 학계에서는 흔히 백제식 석조로 분류한다. 백제의 석조공예를 대표하는 백제 석조는 현재 3점이 남아있는데, 국립부여박물관에 1점과 국립공주박물관에 2점이 소장되어 있다. 그 가운데 국립부여박물관 중앙로비에 전시되고 있는 석조는 1963년 보물 제194호로 지정될 당시 ‘부여석조’라는 명칭이 부여되었다.

부여석조는 원래 부여현 관아가 있었던 관북리에서 옮겨온 것이다. 이 일대는 백제 궁궐지의 유력한 후보지로 추정되는 ‘관북리 유적’으로 널리 알려진 장소이다. 이를 근거로 부여석조의 성격은 백제 궁궐에서 사용되던 유물로 보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다. 그동안

---

\* 동국대학교(경주)부교수

부여석조는 유물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석조에 새겨진 〈唐平百濟碑銘〉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당평백제비명〉은 660년 당나라 군대가 백제를 멸망시킨 뒤 공적을 기록한 것으로 부여 정립사지 오층석탑에도 같은 내용이 새겨져 있어서 전체 내용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문제는 정립사지 오층석탑과 달리 부여석조에는 〈당평백제비명〉 전체를 새기지 않고 일부만 새겼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에 대해 지금까지 다양한 해석이 시도되었지만 여전히 풀지 못한 의문으로 남아있다.

궁궐유적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이전된 부여석조와는 다르게 국립공주박물관에 소장된 한 쌍의 석조는 원래 공주시 반죽동에 위치한 대통사지에 있었던 것이다. 대통사지 전래 2점의 석조 가운데 1점은 일제강점기 일본 헌병대가 주둔했던 공주시 증동으로 옮겨졌다가 1940년 공주박물관으로 이전되었다. 이로 인해 대통사지 석조의 문화재 지정명칭은 박물관으로 옮기기 이전의 소재지를 따라 ‘증동 석조(보물148호)’와 ‘반죽동 석조(보물149호)’라는 각기 다른 명칭이 부여되었다. 대통사지 석조는 크기나 구조, 조각수법이 동일하여 원래 한 쌍으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부여석조와 대통사지 석조는 양식적인 차이는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같은 범주에 속하는 기형이다. 따라서 본래 유물의 제작 목적도 동일할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 석조의 용도에 대해서는 현재 물을 담아 두는 용기, 또는 연꽃을 심는 석연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생활용수를 위한 용기로 보기에 그 높이가 지나치게 높고, 구조적으로도 불합리하다. 석연지라는 주장 또한 물과 연관된 석조라는 시각의 연장선에서 일반 석조와 구별하기 위해 제시된 대안일 뿐 확실한 근거는 없다. 그러므로 백제 석조의 용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석조라는 명칭이 주는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백제 석조의 성격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당평백제비명〉에 얽힌 의문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 Ⅱ. 근대 이후 부여석조의 내력과 제문제

도르래의 바퀴모양을 닮은 滑車形기대석 위에 둥근 사발을 엮어놓은 듯한 독특한 기형의 부여석조는 부여박물관에 귀속되기 이전까지 부여현 동헌건물 앞에 있었다고 전한다. 부여현 소재 당시 부여석조의 상태는 최근 공개된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사진(건판030148)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사진이 촬영된 시기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후에 촬영된

사진자료와 비교하면 늦어도 1929년 이전에 촬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건판사진 속의 부여석조는 도로변에 바닥이 땅에 묻힌 채 방치된 모습이다. 동체부는 두 조각으로 크게 부서진 상태이며, 기대석은 땅에 파묻혀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Fig. 1).

이후 석조는 부여박물관의 전신으로 1929년에 설립된 부여고적보존회에 의해 이전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부여현 옛 객사건물에 설치되었던 부여고적보존회의 考古品陳列館 전경을 촬영한 사진 속의 진열관 동편 정원에 석조가 노출 전시된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sup>1</sup> 현재 석조 구연부와 내부에는 당시 조각난 동체부를 접합하기 위해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이는 6개의 금속제 나비장 흔적이 남아있다.

부여고적보존회로 이전 직후 부여석조는 야외에 전시되었으나 1939년에 간행된 『박물관진열품도감』 14집에는 보호각 안에 들어있는 사진이 실려 있다.<sup>2</sup> 이 사진을 노천에 전시될 당시의 사진과 비교하면 파손된 활차형 기대석의 하부 테두리에 강회를 보강하여 복원한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아마도 보호각을 설치할 당시 석조도 일부 보수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부여석조는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기 전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Fig. 2).

1993년 국립부여박물관이 관북리에서 동남리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 부여석조도 1993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사진자료를 통해 신축 박물관으로 옮기기 이전과 이후 석조의 모습을 비교하면 몇 가지 변화가 보인다. 먼저 석조 기대석 밑에 4매의 화강석으로 새로 만든 높이 20cm, 일변 180cm의 정사각형 기대석이 마련되었으며, 석조의 구연부에는 떨어져 나갔던 조각



**Fig. 1.** 부여현 동헌 소재 당시의 <부여석조>, *Stone Basin of Puyō*, in Tonghōn of Puyōhyōn (National Museum of Korea, G.D.P.030148)



**Fig. 2.** 1939년경 부여고적보존회 전시 당시의 <부여석조>, *Stone Basin of Puyō*, in Puyō Kojōkponjonhoi, around 1939 (National Museum of Korea, G.D.P.013707)

<sup>1</sup> 『부여박물관의 발자취』(국립부여박물관, 2009), p. 40.

<sup>2</sup> 국립부여박물관, 위의 책(2009), p. 56.

일부가 추가되었다. 구연부에 새로 추가된 부재는 1982년 관북리의 옛 부여박물관 정문 앞 광장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 당시 박물관 정문 동쪽의 배수구 유구에서 수습된 것이다.<sup>3</sup>

1993년 이전 설치를 거치며 부여석조에 적용된 가장 큰 변화는 기대석의 상하를 뒤집어서 복원했다는 점이다. 부여석조 기대석의 높이는 48cm이다. 활차형으로 패인 골의 폭이 90cm로 가장 좁고, 상단 폭 105cm, 하단 폭 125cm로 상단과 하단이 약 20cm가량 차이가 있다. 일제강점기의 복원에서는 폭이 좁은 면이 바닥에 위치하고, 넓은 면이 석조를 떠받쳤으나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면서 폭이 넓은 면이 바닥에 놓이도록 위아래를 뒤집어서 복원하였다. 석조 전체의 비례나 균형으로 볼 때 기대석의 상하 위치는 현재 복원된 모습이 원형에 가깝다고 판단된다(Fig. 3).

기대석 위에 놓인 석조는 높이 101cm, 동체부 최대 직경 198cm, 外口徑 166cm의 둥근 사발모양이다. 내부에는 직경 142cm, 깊이 66cm의 반원형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전체적인 외형은 구연부가 살짝 오므라들면서 밖으로 둥글게 원호를 그리다가 바닥까지 완만한 곡선으로 이어진다. 외부 기면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폭 2cm의 선문이 세로로 돌출새김되어 있다. 이 용기선은 구연부에서 시작되어 바닥 2/3지점까지 이어지는데, 현재 육안으로는 5줄의 용기선이 파악된다. 그중 1줄은 음각선에 가깝고, 1줄은 마멸되었지만 1982년 발굴조사



**Fig. 3.** <부여석조>, *Stone Basin of Puyō*, Paekje, granite, C.H. 149cm, Buyeo National Museum (photo by Han Joung-ho)

때 수습된 파편에 용기선의 흔적이 남아있다. 부여석조의 바깥 기면을 세로로 구획하는 용기선의 숫자를 1930년대 공주고보 교사로 재직했던 가르베 지온(輕部慈恩)은 10개로 파악하였다.<sup>4</sup> 그러나 해방 이후에 간행된 부여석조 관련 자료에는 하나같이 8개의 세로줄로 구획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용기선의 숫자가 8개로 굳어진 이유는 표면마모가 심하여 육안으로 파악이 어렵다는 점과 더불어 고대 석조물에 주로 표현되는 8엽의 연화문을 의식한 예측의 결과이다.<sup>5</sup>

부여석조 표면에 양각된 용기선 중에 육안으로

3 『부여 관북리 백제유적 발굴조사보고 I』(충남대학교박물관, 1985), pp. 11-12.

4 輕部慈恩, 『百濟美術』(寶雲舍, 1946), pp. 106-107.

5 『충남지역의 문화유산-3, 부여군편』(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9), pp. 488-489.

파악되는 용기선의 폭은 약 2cm 내외이며, 용기선의 간격은 구연부를 기준으로 약 50cm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석조 외구경이 166cm이므로 구연부 바깥둘레는 521cm로 복원된다. 이상의 실측자료를 토대로 산출( $521 \div 52 = 10$ )하면 부여석조의 표면은 정확히 10줄의 용기선으로 구획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용기선에 의한 부여석조 표면의 구획은 석조에 새겨진 명문의 분량을 가늠하는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그만큼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그동안 부여석조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석조 자체보다는 주로 석조에 새겨진 명문에 집중되어 왔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부여석조 표면에는 부여 정립사지 오층석탑(이하 정립사지 석탑으로 약칭)에 새겨진 <당평백제비명>과 동일한 명문이 있어서 일찍부터 주목되었다.<sup>6</sup> 정립사지 석탑에 새겨진 <당평백제비명>의 작성시기가 660년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이와 동일한 명문을 새긴 부여석조의 제작시기 역시 늦어도 660년 이전에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 물론 이것이 부여석조가 명문을 새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립사지 석탑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완성된 석조에 필요에 의해 비명을 추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비교자료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부여석조의 제작 시기는 백제 석재 가공기술의 절정기에 해당하는 7세기 중엽으로 추정되며, 인근에서 발견된 <사택지적비>의 건립시기(654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

부여석조에 새겨진 명문은 자경 3.9cm의 해서체이다. 井間을 마련하고 새겼지만 표면 박락과 마모가 심하여 전문을 판독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확인된 명문은 총 23행이며, ‘大唐平百濟國碑銘’이라는 제명을 새긴 첫 번째 행을 제외한 나머지 행은 모두 11자로 구성되어 있다.<sup>7</sup> 명문 전체가 판독되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정립사지 석탑에 새겨진 명문과 부여석조의 명문은 분량이 현격한 차이를 보여 두 비문의 관계는 지금까지 의문으로 남아있다. 정립사지 석탑에 새겨진 <당평백제비명>은 미석에 새겨진 인명 등을 제외하더라도 1900여 자에 달한다. 이와 비교하여 부여석조에 새겨진 명문의 크기와 체제로는 <당평백제비명> 전체를 부여석조의 표면에 새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문제에 대해 부여석조에 <당평백제비명>을 새기려다가 문장이 너무 길어서 석조에는 일부만 새기고, 다시 정립사지 석탑에 새겼다는 의견이 있다.<sup>8</sup> 그러나 정립사지 석탑 비문의

6 『朝鮮金石總覽補遺』, (조선총독부, 1923).

7 황수영, 『한국금석유문』(일지사, 1994), pp. 62-64.

8 임세권·이우태, 『한국금석문집성 4』(한국국학진흥원, 2004), p. 8.

제명 다음에 이어지는 27자(顯慶五年歲在庚申八月己巳朔十五日癸未建洛州河南權懷素書)가 부여석조에는 생략되어 있다. 건립시기와 서자를 밝힌 부분이 생략된 점으로 볼 때 부여석조의 명문은 정립사지 석탑보다 뒤에 새겨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견해로는 부여석조의 명문은 정립사지 석탑 비명의 앞부분 1/3을 새겼거나, 전체 내용을 1/3로 축약하여 새겼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sup>9</sup> 그러나 부여석조의 명문 가운데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1행에서 14행까지 판독된 내용과 정립사지 석탑의 명문을 대조한 결과, 두 비문은 글자 수가 정확하게 일치하여 내용을 축약하여 새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부여석조에 정립사지 석탑 명문의 앞부분 1/3을 새겼다는 주장은 석조 전체에 글자를 새겼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석조 전체에 글자를 새겼을 경우 총 72행이었다고 추산한다.<sup>10</sup> 그러나 이러한 추산은 부여석조의 표면이 8개의 용기선으로 구획되었다고 오판한 결과이다.

앞서 자세히 밝혔듯이 부여석조의 표면은 정확히 10줄의 용기선으로 구획되어 있다. 조사결과 명문이 시작되는 용기선 구획을 1번으로 가정할 때, 그 우측의 10번에 해당하는 구획에도 일부 정간의 흔적이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판독은 어렵지만 일부 정간 내에는 명문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본래 석조 표면 전체에 명문을 새겼음을 알 수 있다.<sup>11</sup> 그리고 용기선을 경계로 한 각 구역에는 9행 11자의 명문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석조 전면에 적용할 경우, 산술적으로 부여석조에는 90행에 걸쳐 총 987자의 명문이 새겨졌다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부여석조에 새겨진 명문은 정립사지 석탑 비명(약 1900자)의 1/3이 아니라 그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을 새겼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여석조에 <당평백제비명>의 절반을 새겼다고 하더라도 왜 전체를 새기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부여석조의 전래장소는 유물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앞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부여석조는 원래 관북리에 위치한 부여현 관아에 있었고, 정확한 지점은 당시 법원출장소로 사용되던 건물 정원이라고 전한다.<sup>12</sup> 이러한 사실은 당시 촬영된 유리건판사진이나 1982년 발굴조사 당시 석조의 파손된 부재가 발견된 것을 통해 입증된다.

부여현 관아가 위치했던 관북리 일대는 도시구획에 따른 입지환경이나 주변에 산재한

<sup>9</sup> 김영관, 「대당평백제국비명에 대한 고찰」, 『역사와담론』 66(2013), p. 6.

<sup>10</sup> 『금석문자료 1』(국립중앙박물관, 2010), pp. 196-200; 김영관, 위의 논문(2013), p. 6.

<sup>11</sup> 이와 같은 결과는 탁본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국립중앙박물관, 위의 책, p. 199에 수록된 탁본 참조).

<sup>12</sup> 輕部慈恩, 앞의 책(1946), p. 107.

초석, 장대석, 가공석재, 와전류 등 백제 유물을 근거로 백제 궁궐지의 유력한 후보지로 지목되는 곳이다.<sup>13</sup> 1982년 이후 여러 차례 이어진 발굴조사 결과 백제의 연못, 도로, 건물터기단 및 석축시설, 공방지 등이 확인되어 궁궐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사 성과는 부여석조의 성격이 사찰과 관련된 유물이라는 관점에서 궁궐에서 사용하던 석조로 시각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 중에 부여 관북리 유적이 백제의 궁궐지라고 단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덧붙여 관북리 유적 인근에서 백제 <사택지적비>가 출토되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14</sup>

부여 관북리 유적이 사비시대 백제 궁궐지라 하더라도 이 석조가 제작당시의 원위치에서 계속 전래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석조가 있었던 위치가 조선시대 관아로 운영되던 장소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고대 금석문 자료 중에는 원위치를 떠나 조선시대 관청 부근에서 발견된 사례가 많다. 이처럼 관청 인근에 금석문 자료가 집중된 원인은 조선후기 금석문에 관심을 가진 지식인이나 관리들이 서체 연구와 안전한 보관을 위해 관청으로 옮긴 것으로 해석된다.<sup>15</sup> 따라서 부여석조 역시 후대에 인근 사찰유적에서 관아로 이전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부여석조를 주제로 연구한 논문은 없다. 다만 관련기관의 유물소개 자료와 일부 논저에 대략적인 언급이 있을 뿐이다. 이들 자료에 부여석조의 용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석조와 같이 물을 담아두는 용기, 또는 연꽃을 심는 연지라는 해설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부여석조의 용도를 물과 관련된 보편적인 석조로 보기에는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 우선 물을 담는 용도로 제작된 통일신라 방형석조 내부에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배수구가 부여석조에는 없다. 그리고 돌로 제작된 수조의 경우 아무리 큰 석조라 하더라도 높이가 최대 90cm를 넘는 사례가 없다. 그에 비해 부여석조는 추가된 지대석을 빼더라도 높이가 150cm에 육박하여 물을 담고 퍼내기에 불합리한 구조이다. 따라서 부여석조는 실생활에 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부여 석조가 연꽃을 심는 연지라는 의견은 가르베 지온이 유사한 형태의 <법주사 석련지>가 ‘蓮池’로 불리는 점과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서거정의 <石甕菖蒲>라는 시를

<sup>13</sup> 『부여 관북리 백제유적 발굴조사보고 I』(충남대학교박물관, 1985), pp.2-4.

<sup>14</sup> 홍사준, 「백제 사택지적비에 대하여」, 『역사학보』6(역사학회, 1954), p.254.

<sup>15</sup> 하일식, 「한국 고대 금석문의 발견지와 건립지」, 『한국고대사연구』93(한국고대사학회, 2019), pp.64-80.

근거로 주장한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비판 없이 이어지고 있다.<sup>16</sup> 그러나 <법주사 석연지> 역시 연꽃을 심기 위해 제작되었다는 근거는 없으며, 표면장식이나 구연부에 천인상을 조각한 난간이 설치된 점으로 볼 때 부여석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된다.<sup>17</sup> 그리고 공주 대통사지 석조로 추정되는 돌 항아리에 창포가 식재된 모습을 읊은 서거정의 시는 조선시대 상황에 대한 묘사이지 제작당시 용도에 대한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시문의 도입부를 보더라도 서거정은 백제 때 만들어진 돌 항아리가 원래 무슨 용도일까라는 의문을 품고 시문을 전개한다.<sup>18</sup>

이후 부여석조가 연꽃을 심는 연지라는 의견은 그 용처가 사찰에서 궁궐로 바뀌었을 뿐 부여석조와 관련된 거의 모든 자료에 채택되었다. 심지어 백제 왕궁의 정원에 두고 연꽃을 심었다는 전설이 있는 유물로 비화되기도 한다.<sup>19</sup> 하지만 부여석조가 연꽃을 관상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보기에는 그 높이가 지나치게 높다. 그리고 익산 왕궁리 유적이나 경주 월지를 통해 보듯이 보편적으로 고대 궁궐에는 별도의 園池를 조성한다. 관북리 유적에서도 궁궐 원지의 형태와는 다르지만 방형 연못유구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연못이 있는 궁궐에 관상용 연꽃을 심기 위해 석연지를 별도로 설치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연꽃을 관상할 수 있는 기간은 여름 한 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부여석조의 용도는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재검토가 요구된다.

### Ⅲ. 부여석조의 성격

부여석조의 외형은 받침대 위에 둥근 그릇을 얹어놓은 모양이다. 재질과 크기는 다르지만 형태적으로 부여석조와 가장 유사한 고대 공예품을 찾는다면 일본 東大寺 전래 금동발우를 지목할 수 있다. 8세기의 제작으로 추정되는 <동대사 금동발우>는 1944년까지 동대사 대불전의 노사나불과 양 협시보살의 공양구로 사용되던 유물로 현재 3점이 남아있다. 동으로 기본

<sup>16</sup> 輕部慈恩, 앞의 책(1946), pp. 106-107; 옥선희, 「한국 石槽에 관한 一考」, 『동국사상』 13(동국대학교 불교대학, 1981), p. 79.

<sup>17</sup> <법주사 석연지>의 성격에 대해서는 향후 미륵상생신앙과의 관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sup>18</sup> 『동국여지승람』 권17, 공주목, 石甕菖蒲, “百濟古物唯石甕 腹大濩落將底用 誰知菖陽天地精 開雲斲石此移種 根盤九節蛟龍老 性通神靈天下少 餌之可以延修齡 何用區區拾瑤草.”

<sup>19</sup>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앞의 책(1989), p. 489.

형태를 주조한 후 녹로를 이용하여 성형했으며, 내면과 외면에는 도금한 흔적이 남아있다.<sup>20</sup> 동대사 금동발우는 재료와 크기는 다르지만 기대 위에 발우를 올리는 형식뿐만 아니라 동체의 저부가 다소 좁아지기는 했지만 구연부가 살짝 오므라드는 발우의 기형도 부여석조와 매우 유사하다. 특히 활차형 기대의 형태는 중앙에 두 줄의 용기선을 돈을새김 한 것을 제외하면 부여석조의 기대석을 금속재질로 축소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흡사하다(Fig. 4).<sup>21</sup>

〈동대사 금동발우〉가 일반 승려들이 사용하는 발우가 아니라 불전에 공양을 올리는 용도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금동발우가 불상에 공양을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다면 승려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발우보다는 석가가 소지했던 발우, 즉 ‘佛鉢’의 형상이 반영된 발우일 가능성이 크다. 발우의 크기도 동체 직경이 33cm가 넘는 대형으로 제작되었는데, 어쩌면 『고승법현전』에 ‘2斗 정도(可容二斗許)’라고 기록된 폐사와르 전래 불발의 크기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재질은 다르지만 〈동대사 금동발우〉와 동일한 기형의 은제발우가 正倉院에도 4점이 남아있다. 〈정창원 은제발우〉 역시 재질의 특수성과 크기, 기대를 갖춘 형식 등을 근거로 불전의 공양구로 사용하던 발우가 분명하다고 본다(Fig. 5).<sup>22</sup> 이처럼 동일한 기형과 형식을 갖춘 금속제 발우가 여러 점 남아있다는 것은 당시 이러한 형식을 갖춘 발우가 불발의 전형으로 통용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여석조는 구체적인 쓰임새는



Fig. 4. 〈금동발우〉, Gilt Bronze Buddha's Bowl, 8th century, Gilt bronze, mouth dimension. 28.5cm, Todaiji Temple All of Todaiji Temple, p.92)



Fig. 5. 〈은제발우〉, Silver Buddha's Bowl, 8th century, Silver, mouth dimension. 28.8cm, Shosoin (The 70th Shosoin Exhibition, p.54)

<sup>20</sup> 『奈良六大寺大觀-東大寺1』(岩波書店, 1970), pp.101-102; 『東大寺のすべて』(나라국립박물관, 2002), p.92.

<sup>21</sup> 〈동대사 금동발우〉의 기대에는 제작에 사용된 동의 무게가 ‘重大一斤二兩’이라는 명문이 있다. 이 명문의 글자를 근거로 현재 (Fig. 4)와 같이 기대의 넓은 면이 위로 향하도록 발우를 전시한다. 그러나 현재의 안치방식은 발우와 기대가 접하는 면이 들떠서 부자연스럽고, 전체 균형도 불안정하다. 기대의 명문은 刻字의 편리를 위해 넓고 평평한 면을 선택하여 새기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창원 은제발우〉와 같이 기대의 넓은 면이 바닥에 놓이도록 결합하는 것이 원형이라고 판단된다.

<sup>22</sup> 『第70回 正倉院展』(나라국립박물관, 2018), p.54.

<동대사 금동발우>와 다르지만 형식과 기형이 흡사한 점으로 볼 때, 불발을 형상화한 조형물일 가능성이 높다.

불교경전에는 석가가 지녔던 발우, 즉 불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전한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바로 석가가 성도했을 때 사천왕이 바쳤다는 돌로 된 발우이다. 이 ‘四天王奉鉢’에 대해서는 『태자서응본기경』, 『대반야바라밀다경』,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 등 여러 경전에 등장하며, 그 내용은 경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현장의 『대당서역기』에 수록된 다음의 기사는 여러 불전에 전하는 사천왕 불발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때 사천왕이 4방에서 다가와 각자 지니고 있던 금발우(金鉢)를 바쳤다. 세존께서 묵묵히 계시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금발우는 출가한 자에게 적당하지 않은 그릇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사천왕이 금발우를 버려두고 은발우(銀鉢)를 올렸다. 이어서 파리·유리·마노·거거·진주 등으로 만든 발우를 올렸으나 세존께서는 이런 것을 하나도 받지 않으셨다. 마침내 사천왕은 각자 궁으로 돌아가서 돌로 만든 발우를 가지고 왔다. 이 발우는 감청색이 영롱하게 비치는 것으로 이것을 바치니, 세존께서는 그들의 것을 사양하지 않고 모두 받으셨다. 그리고 차례로 포개니 그것은 하나의 발우가 되었다. 이로 인해 바깥쪽에서 보면 4개의 테두리(四隆)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sup>23</sup>

『대당서역기』에 묘사된 사천왕이 석가에게 바쳤다는 발우의 가장 큰 특징은 네 개의 발우를 하나로 포개서 사용했기 때문에 나타났다는 4겹의 테두리이다. 그리고 이 기록은 당시 중국 승려들도 사천왕불발의 유래와 불발의 특징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부처님의 발우를 숭배하는 불발신앙은 실제 석가의 발우가 전래되던 폐샤와르를 중심으로 간다라 지역에서 성행하여 불교미술에도 적극 반영되었다. 간다라의 불발조형은 주로 불상이나 보살상의 대좌에 부조로 표현되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사례만 해도 60여 점에 달한다.<sup>24</sup> 이들 간다라 불교조각에 새겨진 불발은 사천왕이 석가에게 바친 불발의

<sup>23</sup> 『大唐西域記』卷第8, T2087, 917c09~917c17. “…時四天從四方來 各持金鉢而以奉上 世尊默然而不納受 以爲出家不宜此器 四天王捨金鉢奉銀鉢 乃至頗胝琉璃瑪腦車渠眞珠等鉢 世尊如是皆不爲受 四天王各還宮奉持石鉢 紺青映徹重以進獻 世尊斷彼此故而總受之 次第重疊按爲一鉢 故其外則有四隆焉.” 이하 본고에 인용한 번역문은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에 수록된 해당 경전의 번역본을 토대로 일부 수정했다.

<sup>24</sup> 이주형, 「발우의 유전·인도 불교미술의 佛鉢 경배」, 『중앙아시아 연구』12(중앙아시아학회, 2007), pp.97-100.

특징이자 페샤와르에 전래되던 불발의 형태를 따라 구연부 테두리를 4겹으로 표현하는 특징이 있다. 일례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하는 일본 동경국립 박물관 소장 <불발공양상>에 새겨진 불발에도 4겹의 테두리가 뚜렷하게 묘사되어 있다(Fig. 6).

당시 중국의 불교도들도 페샤와르에 전래되던 불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 불발을 경배하기 위해 인도를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했다.<sup>25</sup> 402년 페샤와르를 방문했던 법현은 그가 목격한 불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Fig. 6. <불발공양상>, Part of Relief of Offering Buddha's Bowls to Buddha, 3rd and 4th century, C.H. 51cm, Afghanistan, Tokyo National Museum (photo by Lee Jinyeoung)

부처님 발우는 바로 이 나라에 있다. ... 이곳에는 대략 7백여 명의 승려가 있었는데, 정오가 되면 부처님 발우를 꺼내서 속인들과 더불어 여러 가지 공양을 올리고 그런 뒤에 점심을 먹는다. 해 질 무렵에 향을 사를 때도 그렇게 한다. 부처님 발우는 그 용량이 2두(斗) 정도로 색깔은 흑색이 짙은 잡색(雜色)이며, 4개의 테두리(四際)가 분명하고 두께는 2푼 정도로 매우 광택이 있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속에 꽃을 조금만 넣어도 발우가 가득 차지만 부자는 많은 꽃으로 공양하려고 백천만 곡(斛)을 넣어도 끝내 발우를 채울 수가 없다고 한다.<sup>26</sup>

법현이 목격한 페샤와르의 불발도 앞서 언급한 여러 불교경전이나 『대당서역기』의 기록과 같이 4겹의 테두리가 분명하다고 묘사하였다. 『대당서역기』의 ‘四隆’과 『법현전』의 ‘四際’는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사천왕이 바친 4개의 발우를 하나로 포개서 나타난 4개의 테두리를 뜻하는 것으로 석가가 지냈던 불발을 상징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4겹의 테두리(이하 사제로 통칭)를 표현한 불발의 조형도 불교도들의 불발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동아시아에 전래되었을 것이다.

부여석조가 불발을 표현한 조형물이라는 사실은 구연부에 구현된 4겹의 테두리, 즉

<sup>25</sup> 이주형, 앞의 논문(2007), p. 121.

<sup>26</sup> 『高僧法顯傳』 1卷, T.2085, 858b21~858c03. “佛鉢即在此國…可有七百餘僧日將欲中衆僧則出鉢與白衣等種種供養然後中食至暮燒香時復爾可容二斗許雜色而黑多四際分明厚可二分甚光澤貧人以少華投中便滿有大富者欲以多華供養正復百千萬斛終不能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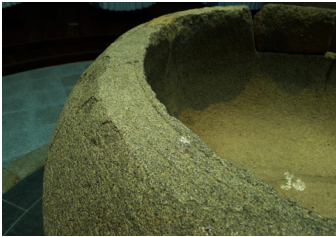


Fig. 7. <부여석조>의 구연부에 표현된 四際, Saje [Four lines] intagliated on mouth rim of Stone Basin of Puyō (photo by Han Jounggho)

四際의 표현을 근거로 더욱 분명해진다. 현재 부여석조의 구연부는 많은 부분이 파손되었지만 1/3가량은 원형이 잘 남아있다. 이 원형이 남아있는 구연부를 살펴보면 3개의 선을 음각하여 4점으로 겹쳐진 발우의 테두리가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음각선으로만 테두리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구연부를 바깥으로 살짝 경사지게 다듬고, 맨 안쪽의 테두리는 융기시켜 겹쳐진 모습을 입체적으로 성형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부여석조 구연부의 음각선이 단순히 장식적인 효과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Fig. 7).

이상에서 살펴본 부여석조의 조형적 특징을 근거로 볼 때, 부여석조의 성격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석조나 석연지가 아니라 석가가 지녔던 발우를 형상화한 석조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불발을 석조물로 조성한 국내 사례로는 고려시대에 건립된 <통도사 봉발탑>이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부여석조 조영의 신앙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도사 봉발탑>과 더불어 부여석조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된 공주 대통사지 전래 석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IV. 대통사지 석조와 백제의 미륵신앙

<통도사 봉발탑>은 석등의 대석과 같이 양련과 복련, 간주석으로 구성된 기대를 마련하고, 그 위에 발우를 얹어놓은 모습이다. 외형상 기대석의 구조와 발우를 덮는 뚜껑이 있다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부여석조와 유사하다. 부여석조와 달리 <통도사 봉발탑>에 뚜껑이 추가된 이유는 봉안장소의 차이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부여석조가 실내 또는 보호각 안에 설치되었던 것과 달리 통도사 봉발탑은 제작 당시부터 불전 외부에 설치하기 위해 건립된 것으로 판단된다(Fig. 8).



Fig. 8. <통도사 봉발탑>, Alms Bowl Pagoda of Tongdosa Temple, Koryō period, C.H. 295cm, Tongdosa Temple (photo by Han Jounggho)

봉발탑의 성격에 대해 통도사에서는 ‘미륵불의 出世를 기원하는 의미로 건립되었다’는 구전이 전한다. 이러한 전승은 봉발탑이 위치한 장소가 미륵불을 모신 용화전 앞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나름 설득력을 갖는다. 그리고 이를 신뢰한다면 <통도사 봉발탑>과 마찬가지로 불발을 형상화한 부여석조 역시 미륵신앙과 관련된 조형일 가능성이 높아 추적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 그러나 미륵신앙의 소의경전으로서 소위 미륵삼부경으로 분류되는 『불설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 『불설관미륵보살하생도솔천경』, 『불설미륵대성불경』에는 미륵불의 출세와 불발에 대한 언급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부여석조와 <통도사 봉발탑> 조영의 미륵신앙 관련 전거는 범위를 확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러 불교경전 가운데 미륵불의 출세와 불발의 관련성을 언급한 경전을 조사한 결과 『연화면경』을 주목하게 되었다. 『연화면경』은 수나라 開皇 4년(584)에 인도출신의 승려 나련제야사(那連提耶舍)가 한역한 경전이다.<sup>27</sup> 경전의 내용은 부처님이 열반을 석 달 앞두고 대중들을 교화한 행적과 열반 이후 승도의 타락, 불법의 가빈국 이전, 佛鉢과 불사리의 유포를 설한 경전이다. 특히 정법의 상징으로 불발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며, 석가 열반 이후 불발이 맞이하게 될 운명과 불발의 流轉, 미륵불에게 전달되는 과정 등에 대한 석가의 예언이 담겨 있다. 『연화면경』의 내용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미륵불의 출세와 불발의 출현에 관한 다음의 예언이다.

아난아, 나는 지금 너에게 말한다. 미래 세상에 모든 중생들의 수명이 8만 4천세일 때 미륵여래(彌勒如來)-응공 정변지는 32상과 80종호를 갖추고, 몸은 자줏빛 금색일 것이고, 원광(圓光)이 한 길일 것이며, 그 목소리는 대법천(大梵天)의 북소리같이 크고 웅장하며, 가릉빈가의 소리같이 맑고 부드럽고 아름다울 것이다. 이때 나의 발우와 사리가 금강제에서 나와 염부제의 미륵불 처소에 이를 것이요, 발우와 사리가 허공 가운데 머물러 다섯 색깔의 빛을 내는데 청·황·적·백·파리(頗梨)가 섞인 색깔을 말한다. … 아난아, 이 발우와 사리가 널리 다니며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난 뒤에 미륵부처님 앞의 허공 가운데 머물면 미륵부처님께서 손으로 발우와 부처님 사리를 받들고, 모든 하늘 사람과 아수라·가루라·건달바·긴나라·마후라가에게 말씀하실 것이다.<sup>28</sup>

<sup>27</sup> 『開元釋教錄』第七 T2154, 547c25.

<sup>28</sup> 『蓮華面經』下卷, T386, 1077a15~1077b12. “阿難 我今語汝 未來之世諸衆生等 壽命八萬四千歲時 彌勒如來應供正遍知 三十二相八十種好 身紫金色圓光一尋其聲猶如大梵天鼓 迦陵伽音 爾時我鉢及我舍利 從金剛際出 至閻浮提

이상 『연화면경』의 경문은 <통도사 봉발탑>이 ‘미륵불의 출세를 기원하는 의미’라는 통도사의 구전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통도사 봉발탑> 조영의 소의경전으로는 『연화면경』을 지목할 수 있다. 그리고 『연화면경』에서 예언한 불발의 流轉은 궁극적으로 백제에서 성행했던 미륵하생신앙과 연결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통도사 봉발탑>은 불발을 표현한 석조물로는 국내 유일한 사례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부여석조가 불발의 조형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시원은 백제의 미륵신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6세기 후반 공주지역은 신라 흥륜사의 승려 眞慈가 미륵을 만나기 위해 공주 水源寺를 찾아갈 정도로 미륵신앙이 성행했다.<sup>29</sup> 당시 공주지역 미륵신앙과 관련된 핵심 인물로는 670년대 중국 유학에서 돌아온 玄光을 주목한다. 강렬한 미륵신앙을 가지고 있던 스승 慧思의 문하에서 수학한 현광은 귀국 후 공주의 翁山에서 교화를 펼쳤다. 현광에게 영향을 미쳤던 혜사의 미륵신앙은 말법의식을 기반으로 한다. 말법시대가 끝나고 미륵불의 출현을 확신한 혜사는 미륵의 출현에 대비하여 <금자반야경>을 제작할 정도로 강렬한 미륵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혜사의 미륵신앙은 현광을 통해 공주지역을 중심으로 백제에 수용되었을 것이다.<sup>30</sup> 당시 공주지역은 미륵신앙의 성행과 더불어 활발한 조영활동이 펼쳐졌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현존하는 작품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주 대통사지 전래

2점의 석조는 미륵신앙과 연관된 백제 석조불발의 시원에 해당하는 작품일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현재 국립공주박물관 정원에 전시중인 한 쌍의 석조는 원래 공주시 반죽동에 위치한 대통사지에 있었던 것이다(Fig. 9). 대통사는 백제 웅진기를 대표하는 사찰로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신라 법흥왕이 양 무제를 위해 527년에 건립했다고 전한다.<sup>31</sup> 그러나 당시



**Fig. 9.** <공주 대통사지 석조>, *Stone Basin of Daet'ongsa Temple Site, Kongju, Paekche, granite, C.H. 110cm, Gongju National Museum (photo by Han Jounggho)*

彌勒佛所鉢及舍利 住虛空中放五色光 所謂青黃赤白頗梨雜色 … 阿難 此鉢舍利廣行教化諸衆生已 於彌勒前虛空中住 爾時彌勒佛 以手捧鉢及佛舍利 告諸天人 阿修羅迦樓羅乾闥婆緊那羅摩睺羅伽言.” 이하 인용한 번역문은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 法集經 외』, pp.569-584에 수록된 『연화면경』 번역본을 토대로 일부 수정했다.

<sup>29</sup> 『삼국유사』 권3, 미륵선화 미시랑 진자사조.

<sup>30</sup> 최연식, 「백제 후기 미륵사상의 전개과정과 특성」, 『한국사상사학』 37(한국사상사학회, 2011), pp.4-9.

<sup>31</sup> 『삼국유사』 권3, 원종흥법 염촉멸신조.

웅진은 백제의 왕도이므로 학계에서는 사찰의 창건주를 신라 법흥왕이 아니라 백제 성왕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다.<sup>32</sup> 대통사의 사명은 대체로 527년에 바뀐 양 무제의 연호 ‘大通’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지만 최근 연호를 사명으로 사용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법화경』의 ‘大通佛’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up>33</sup>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 달리 북위의 도성 낙양에 景明寺와 正始寺 등 황제의 연호를 사명으로 채택한 사례가 있으며, 양 무제의 연호가 ‘대통’으로 바뀌는 시점이 同泰寺가 완공된 시점이라는 것을 근거로 성왕의 대통사 창건은 양 무제의 불교를 통한 치국정책을 따른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sup>34</sup> 대통사 창건의 신앙적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대통사지에서 전래된 두 석조의 성격이 밝혀진다면 대통사뿐만 아니라 백제 불교신앙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일제강점기 자료에 따르면 대통사지 석조는 대통사지의 강당지로 추정되는 기단의 전방 좌우에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었다고 전한다.<sup>35</sup> 그러나 1999년 발굴조사 결과 이곳에서는 대통사지와 관련된 유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36</sup> 이로 인해 대통사지의 위치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 반죽동 당간지주에서 북서쪽으로 150m 지점에서 다량의 백제 유물과 함께 大通으로 추정되는 ‘□通’명 인각와가 발굴되었다.<sup>37</sup> 이를 근거로 본다면 기존에 알려진 대통사지는 원래의 위치에서 후대에 남쪽으로 이동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에 강당지로 추정되는 기단 앞에 놓여 있었다는 두 석조의 위치도 제작 당시의 제자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대통사지 전래 2점의 석조 가운데 강당지 우측에 위치했던 석조는 1910년대에 일본 헌병대가 주둔했던 공주시 중동으로 옮겨져 말구유로 사용되다가 1940년 공주박물관으로 이전되었다. 이로 인해 대통사지 석조의 문화재 지정명칭은 박물관으로 옮기기 이전의 소재지를 따라 ‘중동 석조’와 ‘반죽동 석조’라는 각기 다른 명칭이 부여되었다.

대통사지 석조는 크기나 구조, 조각수법이 동일하여 처음부터 한 쌍으로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석조의 형태는 연화문이 새겨진 기대석을 두고, 그 위에 원통형의 그릇을 올려놓은 모습이다. 부여석조와 비교하여 양식적인 차이는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같은 범주에 속하는

<sup>32</sup> 노중국, 『백제 성왕과 대통사』, 『백제문화』60(백제문화연구소, 2019), p.143.

<sup>33</sup> 조경철, 『백제 대통사 창건의 불교사상적 배경』, 『한국사연구』155(한국사연구회, 2011), pp.231-250.

<sup>34</sup> 소현숙, 『성왕의 대통사 창건과 양 무제』, 『백제문화』60(백제문화연구소, 2019), pp.124-135.

<sup>35</sup> 輕部慈恩, 앞의 책(1946), pp.93-106.

<sup>36</sup> 『대통사지』(공주대학교박물관, 2000).

<sup>37</sup> 조원창, 『공주 반죽동 추정 대통사지 발굴조사 내용과 성과』, 『백제문화』60(백제문화연구소, 2019), pp.5-28.

기형이다. 부여석조의 둥근 몸체와 달리 대통사지 석조는 약간의 볼륨은 있으나 수직에 가깝고, 저부도 직각으로 꺾이며 평평하게 처리되었다.

대통사지 석조의 제작 시기는 비교편년 자료가 부족하여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기대석과 몸체에 새겨진 연화문이 연판 끝을 원형돌기형으로 처리하는 대통사식 와당의 연화문과 차이를 보여 대통사창건기에 제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비시대 연화문 막새와 유사한 삼각돌기형으로의 변화가 감지된다(Fig. 10). 특히 몸체 4방에 규칙적으로 배치된 연화문은 큼직한 중방을 중심으로 짙고 둥근 연판을 배치하여 사비시대 유적에서 흔히 보이는 수막새의 연화문과 흡사한 양식을 보인다. 따라서 대통사지 석조의 제작 시기는 600년을 전후한 백제 사비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대통사지 석조의 용도 역시 부여석조와 마찬가지로 연꽃을 심기 위한 석연지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정도세계의 연지를 축소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sup>38</sup> 그러나 석조의 기대석에 새겨진 연화문은 이 석조물이 단순히 관상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불교신앙과 관련된 조형물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앞서 부여석조가 불발을 표현한 석조물이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이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된 대통사지 석조 또한 불발의 조형일 가능성이 높다.<sup>39</sup>

부여석조가 구연부에 사제를 새겨 불발의 정체성을 표현했다면 대통사지 석조는 동체부의 독특한 장식 문양으로 불발의 특징을 표현했다. 대통사지 석조의 동체 중앙에는 두 줄의 띠를 양각한 횡대를 두르고, 횡대 위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네 곳에 연화문을 배치했다(Fig 11). 이처럼



Fig. 10. <공주 반죽동 석조>의 기대석, Base stone of Stone Basin in Panchuktong, Kongju, Paekche, granite, H. 38cm, Gongju National Museum (photo from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Fig. 11. <공주 중동 석조>의 장식문양, Decorative pattern on Stone Basin in Chungdong, Kongju, Gongju National Museum (photo by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sup>38</sup> 이은창, 「만다라식 연지에 대한 연구」, 『황수영박사 고회기념논총』(1988), p. 227.

<sup>39</sup> 부여석조와 달리 대통사지 석조의 구연부에는 四際가 표현되지 않아 불발로 보기에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두 작품의 제작 시기는 50여 년의 시차가 있고, 동아시아 불교미술에서 불발에 사제가 표현된 사례가 흔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부여석조의 사제 표현이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중앙에 두 줄의 횡대를 돈을새김하고 사방에 화문을 배치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장식이 아니라 고대 불탑의 복발에 새겨지는 전형적인 장식이다. 이러한 불탑의 복발 장식은 일부 변형이 보이기도 하지만 대다수 통일신라 석탑의 복발에도 표현되어 있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Fig. 12). 覆鉢은 말 그대로 발우를 엮어놓은 모양이다. 불탑에 표현되는 복발의 유래에 대해 『대당서역기』에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어서 흥미롭다.



Fig. 12. <불국사 삼층석탑> 복발 장식문양, Decorative pattern on Overturned Bowl of Three-story Stone Pagoda of Pulguksa Temple (photo by Choi Minhui)

... 여래께서 마침내 그 머리털과 손톱을 그들에게 주셨다. 두 장자가 장차 본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경례의 의식을 올려야 할 것인지를 여쭙자 여래께서는 승가지를 반듯하게 접어서 아래에 깔고 다음에는 울다라승을, 그 다음에는 승각기를 쌓고 이어서 발우를 엮어놓은 뒤에 석장을 세우셨다. 이와 같은 차례로 솔도파가 만들어지니 두 사람은 명을 받들고 각자 자기의 성으로 돌아가서 쁘듬의 의식을 본떠서 훌륭하게 세웠다.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 법에 있어서 최초의 솔도파인 것이다.<sup>40</sup>

복발의 유래와 상징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위의 기록에서 밝힌 내용이 절대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최초의 불탑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적어도 이 기록은 고대 동아시아 불교도들이 불탑에 표현된 복발을 석가의 발우, 즉 불발을 엮어놓은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통사지 석조에 불탑의 복발과 동일한 장식문양을 새겼다는 것은 대통사지 석조가 불발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근거자료가 된다.

이상과 같이 대통사지 석조의 성격도 부여석조와 같은 불발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왜 대통사지 석조는 부여석조와 다르게 한 쌍으로 제작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 문제에 대해 백제의 석조불발은 원래 1점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사지 석조처럼 한 쌍으로 제작하는 것이 전형이었을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통사지 석조 가운데 일본 현병대 주둔지로 옮겨졌던 <공주 중동 석조>의 현재 모습은

<sup>40</sup> 『大唐西域記』卷第1, T.2087, 873a07~873a13. “...如來遂授其髮爪焉 二長者將還本國請禮敬之儀式 如來以僧伽脰方疊布下次鬱多羅僧 次僧卻崎 又覆鉢 豎錫杖 如是次第爲窣堵波 二人承命各還其城擬儀聖旨式修崇建. 斯則釋迦法中 最初窣堵波也.” 원문에서 불필요한 협주를 생략함.



**Fig. 13.** <공주 중동 석조>, Stone Basin in Chungdong, Kongju, Baekje, granite, C.H. 107cm, Gongju National Museum (photo by Han Joungho)



**Fig. 14.** 공주 중동 소재 당시의 <공주 중동 석조>, Part of Stone Basin in Chungdong, Kongju (National Museum of Korea, G.D.P013537)

2008년 결실된 기대석과 파손된 동체의 일부를 신재로 보강하여 복원한 것이다(Fig. 13). 동체부를 복원할 당시 신재를 보강하여 접합한 부분은 육안으로도 확연하게 구분된다. 이 부분의 손상은 일본 현병대에서 말구유로 사용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유리건판사진에 보이는 당시 석조의 모습은 인위적인 훼손이 가해진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의 상태는 백제의 석조불발이 한 쌍으로 제작된 이유를 밝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개한 유리건판 사진은 <공주 중동 석조>가 일본 현병대 주둔지였던 공주 중동에 소재할 당시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Fig. 14). 이 사진에는 2008년 복원 당시 교체된 부재가 분리된 상태로 석조 옆에 놓여 있다.<sup>41</sup>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분리된 석재의 단면이 마치 칼로 자른 것처럼 깔끔하게 치석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파손되었다는 석조의 접합면도 매끈하게 다듬어져 있다. 이러한 상태는 인위적인 파손으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다. 따라서 촬영될 당시 <공주 중동 석조>의 모습은 동체부가 원래 조립식

으로 제작되었거나 아니면 근대기 이전에 이미 보수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것이 석조의 원형에서 유래된 현상인지 혹은 파손된 석조를 보수한 결과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두 경우 모두 대통사지 석조의 용도가 물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보통 파손된 석조물을 보수할 경우 떨어져나간 파편을 재활용하여 접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특히 석조와 같이 곡률이 있는 석조물은 곡률에 맞춰 신재를 가공하기도 어렵고,

<sup>41</sup> 이 부재는 1940년 <공주 중동 석조>가 국립부여박물관으로 이전한 이후 석조와 합체 복원된 상태로 전시되었다. 이후 2008년 복원 당시 지금의 신부재로 교체됨에 따라 현재는 국립공주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다.

신재를 결합하기 위해 파손된 부분을 다듬는 충격으로 인해 자칫 손상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공주 중동 석조>의 동체가 별도의 부재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것이 설령 보수의 결과라 하더라도 그 원형이 함께 제작된 <공주 반죽동 석조>처럼 하나의 돌로 제작한 석조였는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정황은 대통사지 석조 중에 하나인 <공주 중동 석조>의 동체가 원래부터 석재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제작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한 이유는 앞서 백제 석조불발 조형의 소의경전으로 지목했던 『연화면경』의 ‘깨어진 불발(破鉢)’을 형상화하기 위한 의도로 짐작된다. 『연화면경』에는 불발이 여러 정법의 상징으로 강조된다. 그리고 석가의 열반 이후 말법시대의 조짐을 알리는 사건으로 蓮花面이라는 인물이 다음과 같이 불발을 깨뜨린다는 예언이 있다.

미래 세상에 계빈국(闍賓國)에서도 꼭 이와 같은 큰 법회가 열릴 것이다. 아난아, 저 다섯 천자가 죽은 뒤에 부란나(富蘭那) 외도의 제자인 연화면(蓮花面)이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는 총명하고 지혜로워 천문(天文)과 28수(宿)와 5성(五星)의 모든 제도를 잘 알 것이며, 몸은 금빛과 같으나 이는 크게 어리석은 사람일 것이다. 일찍이 아라한네 명에게 공양을 베풀 적이 있는데 공양을 올릴 때에 나는 미래에 불법을 파괴시킬 것을 서원한다라는 서원을 세웠다. 그러나 아라한에게 공양을 베풀 까닭으로 날 때마다 단정한 몸매를 받았고, 최후로 그 몸은 국왕의 집에 태어날 것이며, 자신이 국왕이 되어 매지갈라구라(寐岐曷羅俱邏)라고 이름할 것이다. 나의 법을 멸망시킨 이 크게 어리석은 사람은 나의 발우를 깨뜨릴 것이다. 그러나 발우를 깨뜨리자마자 아버지 대지옥 가운데 떨어질 것이다. 이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 죽은 뒤에 일곱 천자가 있어 차례로 몸을 버리고 계빈국에 태어나 다시 여래의 정법을 세우고 크게 공양을 베풀 것이다. 아난아, 발우가 깨어진 까닭에 나의 제자들은 점점 깨끗한 계율을 더럽히게 될 것이다. 발우가 처음 깨어졌을 때 여러 비구들은 비록 청정한 계율을 더럽힐 것이나...<sup>42</sup>

<sup>42</sup> 『蓮華面經』下卷, T386, 1075c04~1075c17. “佛告阿難 於未來世闍賓國土 當作如是大法之會 阿難 彼五天子滅度之後 有富蘭那外道弟子 名蓮花面 聰明智慧善解天文二十八宿五星諸度 身如金色 此大癡人 已曾供養四阿羅漢 當供養時 作如是誓願 我未來破壞佛法 以其供養阿羅漢故 世世受於端正之身 於最後身生國王家 身為國王名寐岐曷羅俱邏 而滅我法 此大癡人破碎我鉢 既破鉢已 生於阿鼻大地獄中 次大癡人命終之後 有七天子次第捨身生闍賓國 復更建立如來正法 大設供養 阿難 以破鉢故 我諸弟子漸污淨戒 鉢初破時 諸比丘等雖污淨戒...”

위에 인용한 경문에서 보듯이 부란나 외도의 제자인 연화면은 불법을 파괴시킬 것을 서원하고 다음 생에 왕으로 환생하여 석가의 발우를 깨뜨리는데, 이 사건은 말법시대를 예고한다. 불발이 깨진 이후 승려들은 청정한 계율을 버리고, 덩달아 왕과 백성들도 타락할 뿐만 아니라 땅도 황폐해지는 이른바 말법의 시대가 전개된다. 『연화면경』에는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중생들의 악행은 더욱 심해져서 석가의 깨어진 발우는 북쪽으로 옮겨가 그곳 중생들의 공양을 받는다고 예언한다. 그리고 다시 ‘깨어진 불발’은 파라발다국에 이르고 불력과 그곳 중생들의 선근에 감동하여 깨지기 이전 상태로 회복된다고 한다.

… 저 깨어진 발우는 파라발다국(波羅鉢多國)으로 향할 것이다. 저 나라 백성들이 부처님의 깨어진 발우를 보고 여러 가지 꽃·사르는 향·가루향·바루는 향·등불·꽃목걸이·여러 가지 음악으로 이 발우에 공양할 것이니… 아난아, 이 부처의 깨어진 발우가 부처의 힘과 중생의 선근에 감동하여 나의 이 깨어진 발우는 저절로 본래대로 회복되어 처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될 것이다.<sup>43</sup>

이와 같이 『연화면경』에서는 불발이 석가 열반 이후 여래의 정법을 상징하는 유품으로 중생들이 정성을 다해 공양해야 할 대상으로 강조한다. 연화면이 깨뜨린 불발은 말법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말법시대의 중생들이 숭배해야 할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다. 뿐만 아니라 깨어진 불발은 종교적 신이를 드러내는 성스러운 유품으로서 신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공주 중동 석조>가 원래부터 별도의 석재를 조합하여 동체를 제작한 것이라면 『연화면경』에 등장하는 ‘깨어진 불발’을 표현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파라발다국에서 불력과 중생의 선근에 감동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된 이후 불발은 염부제에서 사라진다. 『연화면경』에는 이후 부처님의 발우가 용궁과 천상을 流轉하며 천신들의 공양을 받고, 땅속 金剛際에 머물다가 미륵불이 하생할 때 다시 염부제에 나타난다고 한다. 『연화면경』에서 예언한 불발의 유전은 궁극적으로 미륵하생신앙과 관계된 것이다. 연화면의 악행으로 깨어진 석가의 발우는 불력과 파라발다국 중생들의 선근에 의해 원상태로 회복되지만 지상에서 사라져 천상을 유전하는 동안 말법의 시대가 이어진다고 경전은

<sup>43</sup> 『蓮華面經』下卷, T.386, 1076a03~1076a09. “彼破碎鉢當向波羅鉢多國 彼國人民見佛碎鉢 以種種花燒香末香塗香 燈明花鬘種種音樂供養此鉢…阿難 此佛碎鉢以佛力故亦是衆生善根感故 我此碎鉢自然還復如本不異”

서술한다. 이후 발우는 다시 염부제에 출현하는데 그 시기가 바로 미륵불이 하생할 때라는 것이다.

『연화면경』에서 이야기하는 불발의 유전은 말법시대의 서막과 종말을 의미한다. 불발의 상태는 깨어진 불발과 온전한 불발로 구분되는데, 동일한 석가의 발우라 하더라도 그 상징성은 서로 다르다. ‘깨어진 불발’이 말법을 상징한다면 ‘온전한 불발’은 미륵불이 출세하는 용화세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불발은 여래의 정법을 대신해서 숭배하고 공양을 베풀어야 할 대상으로서 ‘온전한 불발’은 천상을 유전하며 천인들의 공양을 받는다. 그러나 파라발다국에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된 후 불발은 염부제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중생들이 구원의 방편으로 공양할 수 있는 대상은 ‘온전한 불발’이 아니라 ‘깨어진 불발’이다.

이상의 내용은 신앙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불발이 조영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대통사지에 전래되던 두 석조를 『연화면경』에 결부시켜 해석하면 <공주 중동 석조>는 말법의 상징으로 연화면이 깨뜨린 불발을 형상화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하나의 돌을 깎아 온전한 형태로 제작한 <공주 반죽동 석조>는 용화세계 또는 미륵불의 하생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불발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앞장에서 살펴본 부여석조도 온전한 불발이 아니라 깨어진 불발을 표현한 조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982년 관북리 유적 발굴조사 때 수습된 부여석조의 구연부 조각을 통해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구연부에서 분리되었던 부재는 높이 32cm, 폭 43cm 크기로 현재 원위치에 접합되어 있다(Fig. 15). 수습된 부재를 접합하기 이전 구연부의 떨어져나간 자리를 살펴보면 <공주 중동 석조>와 마찬가지로 단면이 매끈하게 치석되어 있다. 이러한 단면 상태는 충격에 의해 파손된 것이 아니라 제작 당시부터 인위적으로 가공한 흔적임이 분명하다. 수습된 부재의 노출된 측면은 파손된 상태이지만 바닥면과 우측 접합면은 정교하게 치석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보조 장치가 없이도 지금처럼 안정적인 접합이 가능한 것이다(Table 1 참조). 물론 이러한 현상이 후대에 파손된 석조를 보수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석조의 몸체에는 박락되어 보이지 않는 용기선이 수습된 부재에는 남아있으며, 구연부의 사제를



Fig. 15. <부여석조>, Stone Basin of Puyö, Paekche, granite, C.H. 149cm, Buyeo National Museum (photo by Han Jounggho)

〈Table 1〉 발굴조사 수습 부재 접합면 세부(사진 필자)

Detail of figure joined parts of *Stone Basin of Puyŏ* discovered in an excavation and *Stone Basin of Puyŏ* (photo by Han Joung-ho)



표현한 음각선도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때, 원래부터 별도의 석재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제작한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불발의 동체를 조합식으로 제작한 흔적이 〈공주 중동 석조〉와 부여석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여석조가 깨어진 불발의 조형이라고 한다면 부여석조도 대통사지 석조처럼 원래 한 쌍으로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존하는 부여석조는 한 쌍의 불발 가운데 ‘깨어진 불발’을 형상화한 것이고, ‘온전한 불발’을 표현한 석조는 어느 시기엔가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론은 공교롭게도 부여석조에 새겨진 〈당평백제비명〉에 얽힌 오래된 난제를 해결해 준다. 앞서 우리는 정림사지 석탑에 새겨진 〈당평백제비명〉의 절반 분량이 부여석조에 새겨졌음을 확인하였다. 추론한 바와 같이 부여석조가 원래 한 쌍이었다면 비명의 나머지 분량은 유실된 또 하나의 석조에 모두 새길 수 있다. 결국 부여석조의 〈당평백제비명〉은 내용의 일부, 또는 축약해서 새긴 것이 아니라 비문 전체를 한 쌍의 석조에 각각 절반씩 나눠서 모두 새겼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존하는 부여석조에 〈당평백제비명〉을 절반만 새겼다는 것은 석조가 본래 한 쌍이 존재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부여석조의 성격이 일반 관상용 석조물이 아니라 불발을 형상화한 예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보면, 정림사지 석탑과 더불어 당나라 군대가 〈당평백제비명〉을 새기기 위해 선택한 석조물은 모두 백제인들이 숭배하던 신앙의 대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결국 이러한 만행은 패망한 백제에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지만 당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선언이었던 셈이다.

## V. 맺음말

이상에서 그동안 연꽃을 심는 석연지로 추정되던 백제 석조의 성격이 미륵신앙과 관련된 불발의 조형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백제 석조가 불발을 표현한 석조미술품이라는 사실은 부여석조의 기형과 구연부에 표현된 四際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석조불발은 584년에 한역된 『연화면경』을 소의경전으로 제작되었으며, 경전의 내용을 토대로 백제의 석조불발은 원래 대통사지의 사례와 같이 한 쌍으로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이러한 추론은 <당평백제비명>의 일부만 부여석조에 새겼다는 기존의 해석과 달리 한 쌍의 석조에 각각 절반씩 나눠서 비명 전체를 새겼다는 새로운 해석으로 이어진다.

결론적으로 부여박물관과 공주박물관에 소장된 3점의 석조불발은 말법사상에 기반을 둔 백제 미륵신앙의 단면을 보여주는 귀중한 물질자료이다. 나아가 신앙 형태의 변화는 있지만 인도의 폐샤와르를 중심으로 성행하던 간다라의 봉발신앙과 불발조형이 백제에 전래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불교미술품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끝으로 백제의 석조불발과 고려시대에 건립된 <통도사 봉발탑> 사이의 시간적 공백을 메워주는 자료로 김제 금산사의 철수미좌와 보은 법주사 철좌, 논산 개태사 철좌 등이 주목된다. 이들 유물은 모두 미륵신앙과는 무관한 유물로 거론되고 있지만 개태사 철좌의 기형을 통해 불발을 표현한 조형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백제의 봉발신앙을 계승한 인물로는 백제계 후손이자 금산사와 법주사를 창건한 진표가 주목되며, 그가 말년에 주석했던鉢淵寺라는 寺名도 봉발신앙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걸쳐 제작된 이들 대형 철좌는 모두 진표계 미륵신앙과 관련된 불발로 향후 심도 있는 연구를 이어가고자 한다.

**\*주제어(key words)**\_불발(佛鉢, Buddha's Bowl), 백제석조(百濟石槽, Baekje Stone Basin), 봉발탑(奉鉢塔, Alms Bowl Pagoda), 대통사(大通寺, Daetong-sa Temple), 연화면경(蓮華面經, Lianhua mian jing), 미륵신앙(彌勒信仰, Maitreya Worship), 당평백제비명(唐平百濟碑銘, Stele of the Tang Empire's Conquest of the Baekje Kingdom)

■ 투고일 2020년 3월 16일 | 심사개시일 2020년 4월 1일 | 심사완료일 2020년 4월 21일 ■

## 참고문헌

### 1. 사료

『開元釋教錄』  
『高僧法顯傳』  
『大唐西域記』  
『東國輿地勝覽』  
『三國遺事』  
『蓮華面經』  
『한글대장경』, 동국역경원

### 2. 한국어 문헌

김영관, 「대당평백제국비명에 대한 고찰」, 『역사와 담론』66, 2013.  
노중국, 「백제 성왕과 대통사」, 『백제문화』60, 2019.  
소현숙, 「성왕의 대통사 창건과 양무제」, 『백제문화』60, 2019.  
옥선희, 「한국 石槽에 관한 一考」, 『동국사상』13, 1981.  
이은창, 「만다라식 연지에 대한 연구」, 『황수영박사 고희기념논총』, 1988.  
이주형, 「발우의 유전-인도 불교미술의 佛鉢 경배」, 『중앙아시아 연구』12, 2007.  
조경철, 「백제 대통사 창건의 불교사상적 배경」, 『한국사연구』155, 2011.  
조원창, 「공주 반죽동 추정 대통사지 발굴조사 내용과 성과」, 『백제문화』60, 2019.  
최연식, 「백제 후기 미륵사상의 전개과정과 특성」, 『한국사상사학』37, 2011.  
하일식, 「한국 고대 금석문의 발견지와 건립지」, 『한국고대사연구』93, 2019.  
홍사준, 「백제 사택지적비에 대하여」, 『역사학보』6, 1954.  
임세권·이우태, 『한국금석문집성 4』, 한국국학진흥원, 2004.  
황수영, 『한국금석유문』, 일지사, 1994.  
『금석문자료 1』, 국립중앙박물관, 2010.  
『대통사지』, 공주대학교박물관, 2000.  
『부여박물관의 발자취』, 국립부여박물관, 2009.  
『부여 관북리 백제유적 발굴조사보고 I』, 충남대학교박물관, 1985.  
『충남지역의 문화유산-3, 부여군편』,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9.

### 3. 동양어 문헌

輕部慈恩, 『百濟美術』, 寶雲舎, 1946.

『奈良六大寺大觀-東大寺1』, 岩波書店, 1970.

『東大寺のすべて』, 奈良國立博物館, 2002.

『朝鮮金石總覽 補遺』, 조선총독부, 1923.

『第70回 正倉院展』, 奈良國立博物館, 2018.

## References

### I. Primary Sources

*Datang xiyuji*, T. 51, no. 2087.

*Gaoseng faxianz huan*, T. 51, no. 2085.

*Hankūltaechangkyōng*, *Hankūlyōkkyōngwōn*.

*Kaiyuanshijiaolu*, T. 55, no. 2154.

*Lián huá miàn jīng*, T. 12, no. 386.

*Sankukyusa*, written by Ilyeoun (1206-1289).

*Tongkukyōchisūnglam*.

### 2. Secondary Sources in Korean

Cho, Kyōngch'ol (Jo, Gyung-cheol), “Paekche taet'ongsa ch'angkonūi pulkyosasangchōk paekyōng [Buddhism -thoughtful meaning behind establishing Daetongsa of Baekje]”, *Hankuksayōnku* 155 (2011): 231-265.

Cho, Wōnch'ang (Cho, Weonchang), “Kongju Panjuk-dong ch'ujōng taet'ongsachi palkulchosa naeyongkwa sōngkwa [The contents and performance of the excavation survey of assumed Daetongsa temple sites at Banjukdong, Kongju]”, *Paekche munhwa* 60 (2019): 5-30.

Ch'oe, Yōnsik (Choe, Yeon Shik), “Paekche huki milūksasangūi chōnkaekwachōngkwa t'ūksōng [Maiterya beliefs of late Baekje dynasty]”, *Hankuksasangshak* 37 (2011): 1-28.

*Ch'ungnamchiyōkūi munhwayusan-3*, Puyōkūnp'yōn [Cultural Heritage of Chung Nam Area-3, Buyeo], Paekchemunhwakaepalyōnkuwōn, 1989.

Ha, Ilsik (Ha, Il-Sik), “Hankuk kotae kūmsōkmunūi palkyōnchiwa kōnlipchi [The site of the discovery and construction of the ancient epigraph of Korea]”, *Hankukkotaesayōnku* 93 (2019): 61-105.

Hong, Sachun (Hong, Sa Jun), “Paekche sa'aekchichōkpie taehayō [About Baekjae Sataekjijeokbi]”, *Yōksahakpo* 6 (1954): 254-258.

Hwang Suyōng (Hwang, Soo-young), *Hankukkūmsōkyumun* [Korean Epigraph], Ilchisa, 1994.

I, Chuhyōng (Rhi, Ju Hyung), “Paluūi yujōn: Indo pulkyomisulūi pulpal kyōngpae [The fate of a bowl (or bowls): Representations of the Buddha's Bowl and early Indian Buddhism]”, *Chungangasia yōngu* 12 (2007): 97-128.

I, Ūnch'ang (Lee, Eun-chang), “mantalasik yōnchie taehan yōn'ku [A study on the Lotus pond of Vajradhātu

style]”, *Hwangsuyōngpaksa kohūikinyōmnonch'ong* [Collection of Writings in Commemoration of 70th Birthday of Dr. Whang Su Young], 1988.

Im Sekwōn (Yim, Se-Gweon) and I Ut'ae (Lee, Woo Tae), *Hankukkūmsōkmunchipsōng* 4 [A Collection of Korean Epigraph 4], Hankukkukhakchinhūngwōn, 2004.

Kim, Yeonggwān (Kim, Young-Kwan), “Taetāngp'yōngpaekchekukpimyōng e taehan koch'al [A study on Daedang Pyeong Baekjeguk Bimyeong (inscription on Baekje's conquer by the Great Tang)]”, *Yōksawa tamlon* 66 (2013): 1-33.

*Kūmsōkmunchalyo* 1 [Epigraph Data 1], Kuklipchungangpakmulkwan, 2010.

No, Jungguk (Noh, Choong Kook), “Paekche sōngwangkwa taet'ongsa [King Seong of the Baekje Kingdom and Daetongsa temple]”, *Paekche munhwa* 60 (2019): 141-157.

Ok, sōnhūi (Ok, Sunny), “Hankuk sōkchoe kwanhan ilko [On the Korean stone-tubs]”, *Dongguksashang* 13 (1981): 73-92.

*Puyōpakmulkwan ūi palchach'wi* [History of Buyeo Museum], Kuklippuyō pakmulkwan, 2009.

*Puyō kwanpukli paekcheyuchōk palkulchosapoko* 1 [Report on the Excavation of the Remains of Baekje, Buyeo Gwanbukli I ], Ch'ūngnamtaehakkyo pakmulkwan, 1985.

So, hyōnsuk (So, Hyunsook), “Sōngwangūi taet'ongsa ch'āngkōn kwa yang-mu-che [The construction of Daetongsa Temple by King Seong of Baekje and the Emperor Wu of Liang Dynasty]”, *Paekche munhwa* 60 (2019): 121-141.

*Taet'ongsachi* [Daetongsa Temple Site], Kongchutaehakkyo pakmulkwan, 2000.

### 3. Secondary Sources in Chinese and Japanese

*ChōsenKinsekiSoran Hoi* [Comprehensive Survey of Epigraph, Joseon], Chōsensotofufu, 1923.

*Dai 70kai Shōsōinten* [The 70th Shosoin Exhibition], Nara kokuritsu hakubutsukan, 2018.

Karubejion, *Kudara bijutsu* [Art of Baekjae], Tokyo: Hakuunsha, 1946.

*Nara Rokudaiji taikan-Todaiji* 1 [General View of Six Temple in Nara-Todaiji Temple 1], Tokyo: Iwanamishoten, 1970.

*Todaiji no subete* [All of Todaiji Temple], Nara kokuritsu hakubutsukan, 2002.

## 국문초록

백제의 石槽는 직사각형으로 제작되는 일반 석조와 달리 받침석 위에 사발을 얹어 놓은 듯한 독특한 형식을 띤다. 백제 석조의 용도는 그동안 물을 담아 두는 용기, 또는 연꽃을 심는 석연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주장과 달리 백제 석조의 성격은 미륵신앙과 관련된 佛鉢의 조형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백제 석조가 불발을 표현한 석조물이라는 근거는 우선 기형적으로 일본의 고대 금속제 불발과의 유사성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부여석조의 구연부에 표현된 네 겹의 테두리는 여러 불교전적에 기록된 석가가 지녔던 발우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석조불발은 584년에 한역된 『연화면경』을 소의경전으로 제작되었으며, 경전의 내용을 토대로 백제의 석조불발은 원래 대통사지의 사례와 같이 한 쌍으로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이러한 추론은 〈당평백제비명〉의 일부만 부여석조에 새겼다는 기존의 해석과 달리 한 쌍의 석조에 각각 절반씩 나눠서 비명 전체를 새겼다는 새로운 해석으로 이어진다. 결국 부여석조에 〈당평백제비명〉의 절반만 새겼다는 것은 이 석조도 원래 한 쌍이 존재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부여 관북리 유적과 공주 대통사지 전래 3점의 백제 석조는 부처의 발우를 형상화한 예배의 대상으로 말법사상에 기반을 둔 백제 미륵신앙의 단면을 보여주는 귀중한 물질자료이다. 나아가 신앙의 형태는 변화했지만 인도의 폐샤와르를 중심으로 성행하던 간다라의 불발신앙과 불발조형이 백제에 전래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귀중한 불교미술품으로 재평가된다.

## Stone Basin and Maitreya Worship in Baekje

Han, Joung Ho\*

The stone basins of Baekje resemble a bowl on a base stone, distinctive from rectangular shapes that were more common in other regions. They were generally assumed to have been water containers or stone troughs for lotus flowers. However,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Baekje stone basins represent the Buddha's bowl in relation to the Maitreya worship. Their similarity in shape to the ancient metal bowls of Japan, and the four layers of decorative edges around the mouth of the stone basin at the Buyeo National Museum that are specific reference to the records of Buddha's bowl as described in several Buddhist scriptures, support this proposition. The Buyeo Stone basin likely has its theoretical basis in *Lianhua min jing*, a Buddhist scripture translated into Chinese in 584, and was originally a set of two, like the examples found at Daetong-sa Temple site. This supposition leads to a new understanding of the part-inscription of the *Tang's Conquest of the Baekje Kingdom* on the basin. It is probable that the other half was inscribed on the now-lost basin which formed a set with the Buyeo basin. In other words, the fact that only half of the *Tang's Conquest of the Baekje Kingdom* was inscribed on the Buyeo basin proves that it was originally intended as a set of two.

In conclusion, the three stone basins that survive from Baekje—one from Gwanbuk-ri, Buyeo, and two from Daetong-sa Temple site in Gongju—are objects of worship that represented Buddha's bowl, and are important historical documents as evidences of Maitreya worship and belief in the latter-day of the Dharma in Baekje. Moreover, it is also significant as a work of Buddhist art which proves that the worship of Buddha's bowl and its artistic representation was introduced to Baekje from Ghandara in Peshawar region, India, albeit differences in the particularities of the belief.

---

\* Associate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Gyeongju)